

제 309 회

제 1 차

서천군의회본회의 회의록

서천군 의회사무과

2023 년 4 월 5 일 (수) 10시 07분

의 사 일 정 (제1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
2. 제309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부 의 안 건

- | | |
|---|----|
| 1. 긴급현안질문(이강선 의원) | 2 |
| 2. 제305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12 |
| 3.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의장제의) | 12 |
|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원섭의원 외 4인) | 12 |
|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 13 |

○의장 김경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김맹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맹선

의회사무과장 김맹선입니다.

제309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지난 3월 23일 김원섭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3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09회 서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08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3일 제308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09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

(이강선의원) (10시09분)

○의장 김경제

김맹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은 서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3에 따라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 의원은 이강선 의원님으로 질문 시간은 본질문 10분, 보충질문 5분이며 답변 방법은 의원님의 본질문이 모두 끝난 후 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주된 질문자가 우선해서 질문하도록 하며 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질문

내용은 긴급현안질문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내용 중에 실명이 거론되거나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강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선 의원입니다.

먼저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경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사는 군민, 살고 싶은 서천을 건설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기웅 군수님과 김성관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고마움을 표합니다.

저는 현재 추진 중인 ‘풍요로운 미래 성장도시 서천’을 만들기 위한 민선 8기 서천군 조직개편안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조직개편임에도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미흡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개편인 만큼 조직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직개편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군의 미래발전을 위한 치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직만을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추진과정은 철저하게 폐쇄적이면서 주민과 조직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고 조직 안팎에서도 회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웅 군수는 4월 3일 아침 8시 10분경 농민단체의 기습적인 면담요청에 의해 성사된 면담을 한 후 이어 참석한 월례 아침모임에서 내부의 일이 외부에 새어나가 얘기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대규모 조직개편이 어찌 조직 내부만의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군수의 인식마저도

폐쇄적이니 내부 조직사회는 어느 정도일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모든 정보의 관리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보완적으로 필요에 의해 제한적일 수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지나치게 제한하면 기본원칙을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간보고회 이후 작성된 개편안의 추진현황에서는 마치 조직 내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부서별 면담이었다고 말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온도차가 극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군수님께서 이 조직개편이 조직 내부만의 일인지 분명한 행정정보 인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고된 조직개편안은 본청에 3개 국, 2개 담당관제의 17개 과와 2개 직속기관의 5개 과, 1개 사업소, 13개 읍면, 의회에 1개 과로 총 167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존 160개 팀에서 7개 팀이 증가한 것입니다.

둘째로 조직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말 인구수 심리적 최저한계 선인 5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매달 인구 수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소멸 최고위험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직은 더 방대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기본 틀입니다. 지역의 규모는 노령인구의 상대적 증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데 어찌 조직의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상적인 기대감이나 희망으로 조직개편을 해서는 안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충분한 근거와 예측을 통해 필요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을 이루어야 합니다. 군수님의 3국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이상적인 답변이 아닌 현실성 있는 근거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산하의 담당관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군수 발령은 우리 군과 충청남도의 인사 교류에 의해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임하는 부군수는 일반적으로 우리 군 실정을 충분히 파악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입

니다.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영입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현성 없는 명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모든 계획은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야 하지만 감사 분야를 제외한 기획예산과 홍보 등의 분야가 이런 체계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원활한 업무수행을 확신할 수 있는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군의 사활이 달린 지방소멸 위기극복은 지역의 미래에 대해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는 가족행복과를 신설해 인구정책팀을 꾸리는 정도로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에 대한 우리 군의 감수성이 매우 둔감해 보입니다. 인구정책과를 신설해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현실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미흡한 조직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이런 조직개편으로 어떻게 지방소멸위기를 탈출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어느 시대보다도 더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을 보면 안전을 건설현장의 공사 안전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안전불감증의 우려가 예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전은 비단 공사현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모든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안전사고입니다. 이런 안전감수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국에 안전관리과를 두고 총 4개 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 안전정책팀의 업무 과중은 여러 재난이 발생하면서 확인되었지만 그에 대한 해소방안은 미미하고 중대재해와 민방위업무를 한 팀으로 구성한 점에 대해서도 업무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도 묻겠습니다. 재난과 사고의 유형이 상당히 다양해 집에 따라 다양한 재난과 사고 대응태세를 갖추어 주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개편안은 그것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군수님께서 이 개편안이 진정 주민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조

직구성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이 또한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수산 분야에서 내용적으로 해양산업과를 신설하는 개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보고인 해양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기에 충분합니다. 다양한 해양산업을 발굴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해양자원입니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원시의 해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기반이 조성돼 그에 따른 연구와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이런 기반이 필요한 만큼 조성돼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최근에 장항산업단지에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사업 첫 삽을 뜬 것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국가항만시설은 물동량을 기본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 항만건설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역발전은 열정과 욕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미래지향을 위한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고 현실을 기반으로 미래를 위한 필요한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한 채 꿈을 꾸듯이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기반이 충족되지 않은 지역현실에서 조직구성만 해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군수님께서 어떻게 현실성 있는 해양산업기능 강화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합으로 농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농민단체들이 이 통합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군수님은 농업보조금이 중복되고 방만하게 운용되면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통합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센터의 기능과 농정과의 기능이 엄연히 다른 구조와 내용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복에 대한 오해나 성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으로 당사자인 농민 홀대론과 농민과 부서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두었던 위생팀을 보건소에 편입함

에 따른 요식업협회 등의 의견 또한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협회에서 군수면담을 신청했지만 일정을 잡아주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군수님은 어찌하여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인지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직을 모두 본청에 배치하겠다는 개편안에 대한 다수의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의 현장 대응 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각 읍면의 주요기능 중 으뜸은 신속한 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장 대응 업무의 최일선 업무수행자로 시설직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각 읍면에 시설직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군수님께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현장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직을 구성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서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들이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살맛나는 서천을 구현해야 합니다.

우리 군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직개편 추진은 좀 더 심도 있게 관련 있는 주민들의 의견과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신청사로의 이전이라는 것이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청사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설계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우리 군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군수님의 직접 답변과 아울러 보충질문에 있어서도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군수님의 군정철학과 열정을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경제

이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웅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군수 김기웅

존경하는 김경제 의장님 그리고 김아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군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민선 8기 조직 개편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신청사 시대에 걸맞는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소폭으로 추진해왔던 것과는 달리 이번 조직개편은 우리 군 행정의 전체 틀을 새롭게 구성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행 과정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으며 타 자치단체 사례 분석과 내부 검토 과정 등을 거쳐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직개편 결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군 미래 발전이라는 큰 관점에서 조직개편 과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부분과 조직 내부의 일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8기 동안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정도의 전면적인 대규모 조직개편입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부서장의 사전 인식 조사와 355명의 직원이 참여한 조직운용 관련 인식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직렬별로 22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였고 부서별로 적게는 20분에서 많게는 40분까지도 실무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군의회에도 착수 보고와 중간 보고에 따른 추진 상황을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사전 설명드렸으며 조직개편 안에 대하여 실무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드렸습니다. 일부 조직개편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시각에서는 그 과정이 형식적인 수준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

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규정에 따라 여러 차례 조직 개편 시에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동일하게 입법예고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군민 설명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한 경우는 없습니다. 도내의 어떠한 자치단체도 조직개편과 관련한 군민 설명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가 군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입법예고 기간을 당초 20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례아침모임 시 저의 발언은 조직개편안이 아직 검토 중이며 용역 최종 보고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도 하지 않고 내부적인 실무 검토 의견이 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부서에서 관련 단체와 갈등 여론을 조성한 것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다만, 저 또한 행정 조직 개편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행정 행위의 수혜자인 군민의 의견 또한 중요하다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 감소세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군 실정에 3국 체제의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실, 과 단위의 행정 조직 체제였으나 여러 부서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의 연계성을 높이고 최근 고도화되는 행정 환경과 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국 체 도입을 검토하였습니다. 국의 숫자는 인구 감소와 반드시 연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구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 욕구와 제공 분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군은 논과 밭, 산과 강, 바다가 모두 어우러지는 천혜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수산업 등 1차 산업부터 2차, 3차 산업, 관광 및 문화예술·체육 정책, 복지 정책, 미래 신성장 산업 등 군민들께 제공해야 하는 분야별 행정 서비스의 종류와 양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폭 넓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과 복지, 경제와 산업, 안전과 건설 등 연계성이 있는 분야별로 국 중심의 통합 관리와 조정 기능을 높이고 군의 큰 정책 방향은 군수가 결정하고 세부 실무 사항은 부군수와 국장을 중심으로 책임을 갖고 자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국 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국이 총괄하는 소관 부서의 적정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3국 체제를 도입하였으며 2국 체제의 경우 관할하는 부서의 범위가 8~9개에 달해 실질적인 책임 행정 구현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2국 1읍 체제 도입 시 1읍에 4급 직위를 배정하면 자칫 장항읍과 서천읍의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충분히 고려하여 3국 체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에서 공무원 정원은 현재와 같이 778명으로 동결되는 상황에서 기능 인력을 재배치하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 부서와 팀을 재편하는 차원의 성격이며 조직을 방대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의 인사발령으로 실시되고 있는 부군수 산하의 담당관제의 실효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와의 원활한 가교 역할을 위해 도에서 일정 기간 전입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군수 다음으로 아주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군 행정 전반에 걸쳐 총괄하고 아우를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 부군수 산하로 오히려 기능을 강화하고 힘을 실어 준 것입니다. 충남도내 타 자치단체에서도 부단체장 산하에 담당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군수 산하로 담당관제를 두는 것이 효과에 대해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지방소멸 최고위험도시의 인구정책에 대응하는 조직체계의 부족함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도내 지방소멸 최고 위험도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을 가족 행복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 기획감사실

내 마지막 직제에서 전담팀도 아니고 일부 기능으로만 수행하던 것을 가족행복과의 주무팀과 차석팀으로 편제하여 그 중요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해당 팀에서는 각종 정책 수립은 물론 실제 세부 사업 시행 기능까지도 수행하게 됩니다.

인구정책은 우리 군민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인구정책과를 신설하여 어느 특정 부서에서만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 부서가 협력하여 대응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구성한 것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안전 분야에 대한 조직 구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비롯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 안전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안전정책과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국을 설치하고 국의 주무과로 안전관리과의 직제를 높여 그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난과 사고의 유형이 상당히 다양해짐에 따라 종합적인 지휘, 대응 체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팀을 세부적으로 분리하게 되면 한 개의 팀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적어짐에 따라 특정 팀에 더욱 많은 업무 과중이 우려됩니다.

이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정책팀의 정원을 늘리고 재난대응팀과 민방위팀 통합하는 방안 재난 발생 시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해 통합관제팀이 잔류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서 내 기능과 인력을 재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직 구성에 있어 “충분하다”라는 기준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담당 인력과 예산을 늘리면서 군민의 안전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내 수평 이동하는 것으로 조직이 축소되거나 후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에 우리 군 농업 예산 규모는 838억 원으로 축산업의

52억 원, 수산업의 241억 원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분야 보조금 예산은 농정과 115억 원, 농업기술센터 37억 원 등 총 152억 원이며 이 중에 일부 유사한 사업에 중복 투자되는 등의 문제점을 언급한 것이며 농업 전반에 대한 성과가 없음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마트팜, 과학기술 영농, 치유 농업 등 미래 농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농업팀을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그동안 농촌지도관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위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성과 관리 체제를 만들어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복수 직렬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군은 산림과 축산을 하나의 부서로 편제하였으나 실제 축산은 농정과 같은 분야에 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농업 행정과 지도 기능을 통합하며 축산 정책과 기술 지원 기능, 동물 방역 기능까지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일종의 농축산업 분야 전담조직을 구축한 것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각종 구제역와 조류독감 등으로 업무가 과중화되고 있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직속기관의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국 자치단체 중에도 농업기술센터 외의 명칭을 사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센터 내 부서 명칭 검토와 향후 인력 배치 시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직원들의 업무가 지나치게 부담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위생팀의 보건소 배치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충남 15개 시군 중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홍성군 등 7개 시군의 보건소에 위생팀이 편제되어 있으며 청양군과 금산군, 우리 군은 민원담당 부서에 편제되어 있고 그 외 시군은 편제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번 조직개편 검토 시 식중독 등 감염병 발생 시 보건소 내 관련 팀과 연계하여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하여 위생팀의 보건소 이동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갖고 관련 단체와 의견을 나누는 것보다 최종 검토 안에 대해 입법 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일정 조율이 되지 않은 것이 주민을 배척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해당 사항은 음식점 영업 신고 및 허가 처리 시 도시건축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등 여러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점 즉시 민원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생팀 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읍면의 시설직의 본청 사업 부서 배치로 인한 각종 현장대응 업무 미흡 우려를 질문하셨습니다. 매년 토목직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 있으나 성적 과락으로 충원이 저조하고 젊은 토목직 직원들의 잦은 휴직 등으로 현재 11개 면 중 9개 면에만 토목직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배치된 토목직도 신규 직원이 많아 전문성과 실무 능력이 부족하여 현장 대응 업무 수행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면 지역의 토목직 정원을 농촌개발과 지역개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건설과에 배치하여 면 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권역별로 추진하고자 검토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과의 숙련된 선배 공무원과 함께 일하면서 업무 능력도 향상시키고, 여럿이 함께 현장도 확인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한 검토입니다.

다만, 면 지역 토목직의 본청 배치에 따른 각종 주민 숙원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점 등에 대한 많은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면장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고 실제 사업을 수행할 건설과장으로 부터도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별도로 청취하였습니다. 면 단위 토목직을 본청으로 회수하는 방식 외에 토목직 공무원의 순환 배치를 통한 업무 능력 향상과 지역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 민선 8기 동안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정도의 전면적인 대규모 조직개편입니다. 저 또한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보다 군정을 충실

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귀담아 듣고 군민 여러분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 군 전체의 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균형과 도약이라는 관점에서 조직개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을 갖고 한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 중 보다 상세한 부분과 보충 질문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제

김기웅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희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님은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서 질문의 말미에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부 질문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하신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현실성 있는 답변보다는 하나의 희망을 기대하는 답변이었다고 봅니다. 세상에 이상적인 이론은 많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이론은 없다고 합니다. 이상적인 이론이 많은 것은 누구든 상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이론이 없는 것은 현실에는 무수히 많은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적인 이론에 걸맞게 이론에 따라서 이 계획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걸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현실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완벽함에 이르도록 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

리 조직개편도 거기에 걸맞게 현실성이 충분히 반영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3국 체제에서 인구가 감소세가 있지마는 인구 감소세에 연연할 수 없다는 정도의 취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구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욕구가 제공 분야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인구규모에 비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인구 수에 맞게 교부세를 내려보내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읍면의 예산도 인구 수에 맞게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구감소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런 사고방식은 이걸 군 행정을 책임지는 리더로서 충분한 생각인가 의문이 듭니다.

또 의견수렴에 대한 부분도 토론회나 공청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조직개편을 하는데 토론회, 공청회를 하는 경우는 저도 듣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은 해당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였는데 그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서에서도 20분에서 30분을 부서 면담으로 충분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안 한 건에 대해서도 20분, 1시간을 소요해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해도 충분한 의견접근이 어려운 판에 이렇게 큰 사안에 대해서 작게는 20분, 많게는 40분에 부서 별면담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다는 거 이게 충분한 의견수렴이라고 될 수 있겠습니까? 부서원들 30명, 40명을 한 데 모아놓고 20분, 40분 이게 무슨 의견수렴입니까.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의견수렴, 다른 데는 입법예고 20일에서 5일 정도로 줄였다고 하는 것을, 그 나쁜사례를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까? 저는 주민과 함께 소통하려는 입법애기는 소통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충분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이거 절대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군수님의 직접 답변을 요청한다고 말미에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군수로서 조직개편은 군수가 군정을 어떻게 펼쳐나가겠다 그리고 당대 군수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군 미래에 군민의 삶을 설계하고 지역발전을 설계하는데 현 조직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조직개편입니다. 그런데 군수가 이 조직개편의 수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물론 숙지하지 못하고는 제 판단이구요. 충분한 숙지를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회의 이 공간은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군수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제

이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김아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김아진입니다.

답변을 보면 시대에 걸맞는 조직개편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으세요. 이 시대는 공감과 소통의 시대입니다. 공감, 소통이 됐으면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했겠습니까? 이 답변에 이강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성실하게 답변을 해달라, 현실감 있는 답변을 해달라 했는데 이 답변서를 보면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답변과 변명을 듣자고 우리가 의회에서 오늘 이렇게 긴급현안질문을 했겠습니까? 이 답변대로라면 조직개편안 그대로 올라올 거예요? 그대로 올리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답변 조금 있다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강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다 의원님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산품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모시소곡주 가장 알려져 있고 확장

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보면 모시소곡주팀이 해체돼 가지고 제대로 있지도 않아요. 그나마 유명한 특산품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체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안 그래도 축제예산이 반토막 나가지고 주문들 원성이 자자한데 이렇게 팀까지 해체해서 되겠습니까? 그 대안도 나중에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한가지 더, 기획예산담당관의 의회법무팀을 신설했어요. 이제 법무규제팀이 의회법무팀으로 명칭을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입법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는 이 입법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다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입법고문 정책지원관 다 되어 있습니다. 의회법무팀뿐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을 신설하는 목적을 보면 취지에서 “전문분야 재정과 함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담당관제도를 도입하겠다” 하셨습니다. 의회가 견제대상입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재정할 때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 절차를 밟고 마지막에 집행부와 협의합니다. 협의를 할 때 제대로 검토하고 조율하고 협의하면 될 사항을 견제를 하겠다고 의회법무팀 만드셨어요? 집행부에서 하는 조례나 잘 검토하시고 조율하시면 됩니다. 의회와 조율하고 함께 가려는 그런 취지가 있으셔야지 어떻게 이런 발상으로 조직개편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 사항 하나만 보더라도 의회와 소통이 전혀 안되고 의회를 견제대상으로 보고 대립을 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럼 주민들, 군민들과 대립하고 견제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으로 조직개편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의견수렴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의회와 중간보고, 착수보고 때 간담회 했다고 하셨습니다. 반영된 의견 있습니까? 의회에서 간담회 때 말했던 것들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긴급현안질문해서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나중에 입법예고해서 주민들 의견을 제출한다고 하면 그것을 잘 듣고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조직이 왜 있습니까? 군민들

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조직에서 자리 하나 만들어서 더 하려고 승진할 자리 만들려고 조직개편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주민들과 잘 소통하고 공감하고 의견수렴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대대적인 개편을 하고 나면 직원들하고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직개편입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순히 인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 전혀 절충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이 안대로 용역대로 잘 구성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그렇게 밖에 안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질문시간이 5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더하고 싶어도 줄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온 사항으로 나중에 5월 의안심사 때 그대로 안으로 온다고 하면 조율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충분히 조율을 하고 민주적 원칙에 따라서 공개하고 의견수렴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잘했다, 우리 군 열심히 한다, 이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의장 김경제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예.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모시 소곡주팀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아진 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자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조직개편도 의회와 대립으로 가겠다는 의지 이것을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한 것들은 조율을 차후에 충분히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희

한 가지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곡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담당관제 관련해서 의회를 견제를 하고 아까 문구표현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정을 총괄하는 어떤 전반적인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 기획예산 그다음 홍보감사, 관련 담당관 부분에서 이 직제가 사실은 담당관제로 안 가면 행정복지국 산하에 과로 편제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수석국이라고 해도 행정복지국에 너무 권한과 책임이 집중된다는 그런 표현에서 국과 국 간에 담당관 간에 견제와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의 표현입니다.

○의장 김경제

현안질문이 전체적으로 1시간 이상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은 추후에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석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한경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석 의원

한경석 의원입니다.

군수 답변을 통해서 민선8기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10여개월 동안 보고 느낀점을 망라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신청사 이전과 맞물려 보다 효율적인 인사조직을 갖추고자 하는 단체장의 고뇌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첫째, 인구는 급격히 줄어가는데 필요 이상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들만의 나눠먹기식 개편안이 아니냐는 일각의 눈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슬림한 조직 구조하에서도 조직 간 업무영역에 모호함과 낮은 협조로 인해서 부서 간 핑퐁친다, 하세월이다라는 민원인의 자조 섞인 불만이 없지 않은 현실입니다. 3국 담당관 체제로 조직 비대화에 따른 주도권 다툼이나 업무처리에 지연 심화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대정신을 외면한 편

의 위주의 개편안이라는 호평도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대목입니다. 우리 군이 당면한 최대 위기는 인구 급감과 초고령 사회에 맞닥뜨려 있는 상황이라 할 것이며 발등에 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담조직을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수 답변은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을 가족행복과로 신설하였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다소 모호하고 애매한 타이틀보다는 미래를 통찰하고 인구 위기 상황을 관철시켜 나갈 막중한 미션을 부여한 조직, 바로 인구정책과라는 조직을 개명을 하든 아니면 신설하든 명료한 미션을 부여한 조직체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희

답변을 해드릴까요?

○의장 김경제

예,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것은 자료를 통해서 개인 의원님들한테 전달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의 행정의 다변화와 고도화 그다음 주민들의 행정욕구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다고 그와 관련된 저희들이 조직구성을 효율적으로 꾸리지 않은 차원에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이라든가 인구, 특히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전담팀은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담당관제를 인구정책담당관을 고민도 해 봤었고요.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우리 군이 인구 감소 지역에 따른 지방소멸위기 시군, 우리 도 내 9개 시군이 있는데요. 지금 공주, 보령, 논산, 금산 우리 군 포함하고요. 부여, 청양, 예산, 태안 이 군의 자치단체를 들여다 보면 단일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 같은 경우는 인구와 청년을 같이 묶어서 단일팀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군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인구팀과 청년팀을 따로 전담팀으로 구성을 해서 중요성과 집중도를 높이고자 안을 짰다는 거에 대해서 이

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석 의원

서면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의장 김경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혜 의원

(거 수)

○의장 김경제

이지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혜 의원

이지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보면 기구설치 기준에 적용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항목을 만족하는 통폐합을 하거나 증설을 하거나 할 때에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가 2년 연속 증가가 되었을 때고요. 두 번째는 제가 군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과장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가 7개가 증가를 하는데 아까 이강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이 인구 증가세에 있다면 과에 증설이 합당해 보이거나 대통령령에 관한 규정에서도 나타난 것에서 지켜지지 않은 듯한 모습들은 의회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걱정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전에 한경석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자리 나눠 먹기식에 불과하다”라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의회가 걱정하는 것은 군수님이 올바른 군정으로 그리고 의회가 바른 역할로 하기 위해서 수십년만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군민들과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 역시도 답변을 통해서 무언가를 수정하고 수렴하고자 하는 의지는 느껴지지 않아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의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관련규정에 입각하여 증설하는 것인지 주민수, 그 계산방법이 나와있습니다. 또 실, 국 설치 기준 제13조 제1항 관련해서 별표 3에 의하면 시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 이상일

때 1개 이상 3개 이하의 실, 국을 설치할 수 있고요. 군인 경우에는 인구 15만 미만인 경우 1개 이상 3개 이하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위에 해당하는 3국으로 진행을 하지요. 이것 역시도 법령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여 수정 가능 여부와 수정의 범위를 좀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조직을 구성을 할 때 에 특히나 국 같은 경우도 상위단체, 즉 도와 우리 국가정부기관과의 긴밀한 연결성을 반영해서 국도 설치를 하지요. 어찌보면 안전이라는 것은 이강선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과와 전국에 안전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랬는데 안전과 관련해서는 통폐합되면서 이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업무의 과중 내지는 축소로 이어질 것 같은 굉장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편을 하셔서 우려와 염려를 만족시키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경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 의원님들의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공유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경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므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제309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김경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회기를 오늘 하루 동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오늘 하루 동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김원섭의원 외 4인) (11시14분)

○의장 김경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김원섭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건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5월 1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김경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실시를 위한 사항으로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6명 전 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에 이지혜 의원님, 부위원장에 홍성희 의원님을 선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제의) (11시35분)

○의장 김경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지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지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지혜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감사하여 행정사무의 잘못 집행된 부분이나 관행 등을 시정, 보완 요구와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휴일을 포함한 9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장은 본회의장으로하였으며 필요시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그리고 출자, 출연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3일간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대상으로 서류검증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은 서류 검증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는 회의식 감사로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채택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제

이지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된 만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군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김기웅 군수님과 김성관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에는 이강선 의원님, 한경석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09회 서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김경제, 김아진, 김원섭, 한경석, 이강선, 이지혜, 홍성희 (7명)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군수	김기웅
부군수	김성관
기획감사실장	정해순
사회복지실장	홍성갑
자치행정과장	이진희
투자유치과장	노희량
민원봉사과장	김은이
관광축제과장	김익열
문화예술과장	이명란
안전총괄과장	김명원
교육체육과장	나주하
농정과장	박명수
지역경제과장	신창용
환경보호과장	장기수

해양수산과장	신동순
건설과장	전용각
도시건축과장	황인신
보건소장	이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순중
맑은물사업소장	박영정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온숙

○의회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의회사무과장	김맹선
수석전문위원	신동우